한국 화학산업의 미래는 밝다

2000년을 불과 7년 앞둔 오늘, 세계 화학산업계가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 화학산업의 위상은 어떠한가?
한국 화학산업에 있어 1900년대는 전무의 상태에서 많은 것을 가꾸어낸「도약」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초 울산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화학산업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60년대 말 여천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추가로 건설되면서 쌍두마차의 경주가 본격화됐다.
그후 80년대 후반 유래 없는 호황을 타고 여천 · 울산단지가 대대적으로 확장됐음은 물론 삼성 · 현대가 대산에 대규모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건설, 90년대에는 삼두(?)의 격정적인 경쟁관계에서 출발해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비료에서 정유, 석유화학을 거치면서 한국 화학산업은 성장해 왔고 현재는 정밀화학 · 신소재 부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도 2000년이 되기 전에 전자화학 · Specialty 등 고부가 첨단 화학산업이 본괘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화학산업 발전은 관련 수요산업 발전을 유도할 것이 분명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첨단 고부가 소재를 국산화함으로써 전기/전자 · 자동차 등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2000년대 선진 산업국 진입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오늘의 한국 화학산업을 바라보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아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으나 전혀 그렇지만은 않다는 낙관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한국 화학산업은 석유화학을 필두로 해 에너지 · 정밀화학 · 무기화학 · 고분자/소재 부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석유화학은 규모화에 따라 기초유분을 비롯 합성수지 · 합성고무가 과잉상태이고 합섬원료는 공급이 부족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합성수지는 공급과잉률이 30~50%로 수출의존도가 매우 크고 가격이 크게 떨어져 기업채산성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정밀화학은 출발점에 있어 원료 · 중간체를 하나씩 국산화해가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하고, 무기화학은 비료 만능시대의 호황을 뒤로 한 채 지금은 저가 중국산에 떠밀려 일부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에너지는 최근의 과소비 덕에 수요가 크게 늘어 과팽창 상태이나 산업구조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유통상으로 전락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고분자 · 소재는 수요산업의 부품 수입의존도가 높고 가공부문의 낙후성으로 존립기반이 매우 취약하나, 향후 발전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공부문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계획으로 현재의 후진성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같이 한국 화학산업은 부분적으로는 공급과잉 · 가격폭락의 연속선상에서, 부분적으로는 고부가 중간재의 국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 강화의 시험대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업종에 따라 위치가 다르고 발전방향 및 해결책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화학산업은 업종간 및 관련기업간 공통점을 찾고 공동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 협력체제를 갖추어 공동대처방안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 눈앞에 자리잡고 있으며 - 한 · 중의 전통적 특수성은 일본을 배제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 북한 또한 머지않아 우리의 시장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아, 우리 화학산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동의 시장 개척 노력을 전개한다면 오늘의 먹구름이 걷힐 날도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화학산업계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경영과 타율 의존적 사고에 젖어 운용되어 왔다는 점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뒷받침된 마케팅 분석이 없었고,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세계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처하는 노력없이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한국화학경제연구원은 이러한 국내 화학산업 현실을 직시, 정확하고 빠른 마케팅정보를 바탕으로 화학시장을 분석,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화학저널(주간) 창간 2주년을 맞아 화학경제(월간)를 창간했다.
화학경제는 기존의 화학저널 내용을 보완, 심층분석을 통해 화학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2000년대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2000년, 한국 화학산업이 세계속의 화학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국화학경제연구원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3/6/1>